

PADO마인드 경영교육 실시

조직경영전문가 흥문기경영소장 초빙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17일·18일 양일간 흥문기(무슨무슨 경영소장)조직경영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PADO 마인드 경영교육을 실시하였다.

“나와 조직에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PADO과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최금식 본사 대표와 중간관리자, 전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최금식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향후 몇 년을 내다보았을 때 조선사업의 발전은 더디어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 회사는 새로운 도전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진 상태이다.”고 전제한 후 “우리 회사가 3만3천평의 신공장부지를 매입한 것도 남들이 미래가 불안해 안일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 해 나가겠다는 실천의 일환이며 이를 제 3창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선 우리들

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총 17시간으로 진행 된 이번 교육은 중간관리자에 대한 오너십교육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의 행동분석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관리자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의·동영상 등과 함께 개별 설문지를 작성하여 7개의 조를 구성, 그 내용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동안 네댓 차례 교육을 받아왔다는 윤우희 (?과)사원은 “1박2일의 긴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유익한 강의 내용과 정보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향후 회사 발전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번 교육의 만족감을 표시했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제42회 금정대상 대표이사 금정대상 수상



우리 회사 최금식대표이사가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시연맹에서 주최하는 부산산악문화축제에서 제42회 금정대상의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9월 24일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최금식대표이사는 김정실 부산학생 산악연맹 고문과 함께 공동 수상하였는데 올해로 42번째를 맞이하는 금정대상은 산악인 가운데 산악운동에 훌륭한 업적을 쌓고, 등산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산악인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이 밖에 공로상에는 김경섭 부산산악연맹 자문위원이 수상을 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부산광역시연맹 회장과 부산광역시산악연맹 소속 500여명의 산악인이 참석해 그 자리를 빛냈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환경과 예술, 문화발전에 한걸음 도약” 발판 마련 (주)선보공업·환경문화연합, MOU협약 체결



(주)선보공업과 환경문화연합(UEC)이 지난 4일 오후 5시 선보공업 주회의장에서 '건강한 환경과 예술, 문화메세나를 위한 MOU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협약 식에는 선보공업의 최상식 부사장과 서재욱 재무인사, 환경문화연합의 이우상대표와 각 관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선진 환경예술프로그램과 지역문화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등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문화연합 이우상대표는 “10여명의 소수인원으

로 문화예술의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비영리단체로 첫 문을 연 우리 단체는 문화 예술을 우리사회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으로 대대적 국제행사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이윤을 사회에 환원이라는 등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문화연합의 목적을 성공리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상식 부사장은 “우리 회사도 초,중,고의 장학금을 매년 증액하고 있으며, 사하구청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폭 지원중이다. 이번 환경문화연합과의 MOU체결로 인해 제조업체가 지닌 다소 딱딱한 느낌을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걸음 더 따뜻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 본다.”며 소감을 밝혔다.

두 기업 간의 협약식이 성사됨에 따라 환경문화연합은 올해 말부터 문화·예술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선보기업이 향후 향토 문화기업으로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환경의 날 행사 다대포 해변과 몰운대주변일대 정화활동펼쳐



우리 회사는 제16회 환경의 날을 맞아 임직원 및 관계자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지역 환경을 녹색성장의 터전으로"라는 주제로

로 지역구 환경의 날 행사를 가졌다. 사하구 지역의 환경문제에 동참하고 헌신할 목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는 환경의 날 행사에 우리 회사가 향토

기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구 활동을 추가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 날 행사는 뛰어난 주변 환경과 풍광을 자랑하는 몰운대 주변에 버려진 담배꽂이를 비롯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연 정화 활동은 물론,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에 나선 임직원들은 "청정자연에 공원만 조성만 되어있을 뿐, 정작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며 몰운대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회사가 지향하는 "사회공헌과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입을 모았다. 한편, 우리 회사는 분기별 환경의 날 행사와 수준별 녹색교육, 지역리더 녹색교육 등 맞춤형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에 대한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식 맺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동성장 발전"을 위한 실천에 우리 회사가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오후 3시, 우리 회사는 본관 회의실에서 협력 회사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최금식대표이사와 임원들, 그리고 각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5명이 참석했다.

최금식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회사는 현재 대내외 악재를 딛고 해양플랜트 분야에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협력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제도상 이미 대기업으로서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역설하고, "향후 협력사가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시설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를 대표해 장수태(해양패밀리)대표는 "어려운 조선시장에도 불구하고 선보공업은 매년 놀랄만한 성장과 발전을 해 오고 있다"며 "3만평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미래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런 선보의 진취적인 기상과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이 성사됨에 따라 우리 회사는 올해 말부터 동반 성장 기금을 출연하는 등 각 협력사들을 지원하여 해양플랜트분야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대우조선해양 신입사원 당사 방문 조선업의 기술동향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여



조선업의 기술동향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23일 [대우조선해양(주) - DSME] 신입사원 9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대우조선해양(주) - DSME]은 선박 제조에 있어 현대중공업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2위를 다투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다. IMF 이후 모기업 해체라는 어려움을 경험한 대우해양조선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여 명실 공히 세계 조선 시장을 호령하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본사를 방문한 대우조선해양 신입사원들은 조선업의 기술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회사 곳곳을 빠짐없이 둘러보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메이저급 협력업체로 지정된 우리 회사 설계실과 제작현장을 둘러본 신입사원들은 "최고 수준의 조선 유닛 제작 현장을 직접 보

게 되어 감회가 깊고, 많은 것을 배운 뜻 깊은 견학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환영식을 겸한 만찬에서 최금식대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대우조선해양 신입사원들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매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향후 우리 회사가 대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많은 협력과 도움을 주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 많은 협력사에 같은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 할 예정이며, 현장 견학 및 브리핑 등을 통해 상호 협력 가능 분야를 확인하고 내년 초 2차 비즈니스 방문을 추진, 납품계약과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우리회사는 이번 대우조선 신입사원 방문을 계기로 대우조선해양과의 다양한 교류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모델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된 셈이다.

Life 추천여행지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 하늘바람과 역새와 길, 유럽 알프스에 온 듯 “장관”

영남알프스에 하늘역새길이 열렸다. 이번에 추천하는 여행지 영남알프스는 간월산(1,083m), 신불산(1,209m), 영축산(1,059m), 재약산(1,108m), 천황산(1,189m), 가지산(1,240m), 고현산(1,032m) 등 울산시와 양산시, 밀양시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해발 1,000m 이상의 7개 산군(山群)을 말한다. 생김 형상과 풍광이 유럽 알프스에 버금간다고 해서 ‘영남알프스’로 이름 붙여졌다. 산의 8~9부 능선 곳곳에 펼쳐진 광활한 평원의 역새밭이 특징인 영남알프스는 신불산과 영축산 사이 60여만 평의 신불평원, 간월산 아래 간월재에도 10만여 평, 천황산과 재약산에 걸쳐 있는 사자평원의 역새 군락지, 고현산 정상 부근에도 20여만 평의 역새밭이 새하얀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울산시에서 영남알프스의 가장 큰 특징인 역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한때 고민에 빠졌다. 역새를 이용

해서 전국의 어느 산 못지않은 경관을 지닌 영남알프스를 알리고 등산객과 걷기마니아들을 유혹할 방법을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길이 이번에 소개하는 낙동정맥 중주로의 일부를 차용한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이다.

밀양에 속한 가지산과 고현산을 제외한 5개 산군과 능동산을 이어 걷는 동시에 역새를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있는 이길은 마치 하늘 위에서 역새를 내려다보는 듯하다 해서 하늘역새길로 이름이 붙여졌다. 모두 5개 코스로 구성된 하늘역새길은, 5개코스 모두 원점회귀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다.

1코스는 간월재에서~신불산~신불재~영축산까지, 2코스는 영축산~청수좌골~죽전마을, 3코스는 죽전마을~향로산 갈립길~재약산(수미산)~천황재~천황산(사자봉)4코스는 천황산~샘물산장~능동산~배내고개, 5코스는 배내고개~배내봉~간월산~간월재로 나뉘어져 있다. 화

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황금물결 역새 장관을 보며 코스 전체를 완주하려면 약 16시간이 걸린다.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한 지상 1층 규모의 휴게소 건립공사도 한창이다.

하늘역새길이 정비되는 다음 달 말이면, 영남알프스는 역새의 관광명소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 경부고속도로--서울산 IC-언양에서 석남사 국도--가지산 터널방면으로 가다가 좌측 배내골쪽 배내골 입구에서 원동 쪽으로의 길이 아주 멋지다.

추천맛집(지역번호 052) 배내골 죽전마을 주변엔 콘도와 펜션, 민박시설이 많다. 그중 현지에서 추천하는 음식점은 청수골식당(264-5252), 베네치아토종음식점(264-8188) 등이 있다. 울산시청 옆에 있는 한식 미가(268-3444)도 꽃게된장과 생삼겹 살이 별미다.



Life 문화소식

키친가든 꽃과 채소·열매가 영근 정원이 배란다 품으로

키친가든이란 이름 그대로 먹을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채소와 허브, 꽃과 열매 등으로 꾸민 정원이다. 먹을 거리만을 위한 텃밭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채소의 색채와 형태, 질감까지 고려해 정원으로서의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것이다.

꽃과 함께 심는 상추

기본은 채소와 허브의 정원이지만 꽃이 빠진다면 역시 심심하다. 꽃을 골라 함께 심으면 더욱 화려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일년생 화초인 할련화, 팬지, 바이올렛, 카렌듈라, 알리슘, 봉선화 등이 잘 어울린다. 키가 큰 꽃을 가운데에 심어서 부피감을 주고 가장자리에 허브와 채소를 심으면 어떤 각도에서도 잘 보이는 디자인이 나온다. 꽃 대신 허브를 이용해도 좋다. 허브는 잎의

색상으로 컬러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은초록빛을 내는 케일부터 진한 자줏빛을 내는 자주바질, 붉은 줄기가 황홀한 차드 등은 꽃보다도 더 은은하고 아름다운 색을 띤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반은 먹고 싶은 채소와 허브를 채우고, 나머지 반은 디자인을 위해 색상과 크기, 질감을 고려한 꽃과 허브를 심는다.

큰 채소와 작은 채소를 함께 심어 입체감을 준다

토마토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식물은 성장 속도가 느리다. 성장이 느린 식물은 성장이 빠른 채소와 같이 심으면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이때는 성장이 빠른 상추가 제격이다. 단, 상추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한꺼번에 자라기 때문에 절대 한꺼번에 심지 말 것. 가족 수를 생

각해 한 주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한 다음 2주 간격으로 심는다. 미리 심어놓은 상추를 다 먹을 때쯤 새로운 상추가 올라오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는 상추에기가 질리는 일이 없어진다.

꽃다발처럼 촘촘하게 심기

상자 안에 사선으로 혹은 마름모 형태로 디자인해서 식물을 심어보자. 그냥 줄을 맞춰 심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기하학적 무늬를 넣어서 심으면 색다른 연출을 할 수 있다. 또 식물을 심을 때 채소와 허브가 자라는 것을 고려해 등심등성 심을 수도 있지만 촘촘하게 심는 방법도 괜찮다.



촘촘하게 심으면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어린 상태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빠르게 채워져서 보다 풍성해 보인다.

심는 용기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

시중에서 파는 일반 화분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와인 상자나 쓰던 냄비, 소쿠리, 버려야 하는 욕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목재로 프레임 짜고 거기에 정갈하게 채소와 허브를 심으면 깨끗하고 세련된 키친 가든을 구성할 수 있고 혹은 자루를 이용해도 멋진 키친 가든이 완성된다.

Inside SUNBO 우수협력업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을 뛰어야한다. “미래코팅” 이선우대표

신속성과 탁월한 기술력으로 거래처가 요구한 적재적소에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등 공신 업체이다.

“선보와 함께 일하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말은 잇는 미래코팅 이선우 대표는 “조선업체는 긴급으로 요청되는 물품들이 많고 도급업의 특성상 많게는 4회까지 공정을 거쳐야하는 다소 복잡한 작업에 제 날짜에 납품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높기 마련이다”며 “이러한 불만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현재의 미래코팅을 있게 만들었다”고.

대기업 품질보증 팀에서 오랫동안 근무

무해 도장기술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이선우대표. 30여년이 넘는 기술력과 도장업계에 취득하기 어려운 KACE자격증이 그의 일에 대한 욕심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대기업에서의 얻은 경험을 통해 최대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조선소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끊임없이 기술 협력에 노력해 온 점을 자사의 최대 강점으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을 뛰어야한다.’는 사훈으로 매일 직원들과 소통해 오며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중인 이선우 대표. 직원들에

게 좋은 평판을 받는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여 회사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자 노하우이다.

“어느 회사건 미래 발전을 결정하는 중심 그 조직을 구성하는 최말단 직원들이다. 그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자기가 속한 회사의 발전은 물론, 다른 여타 기업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김충민 주임

배관2팀 용접담당

안전 불감증이란,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말로써 안전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는 증세.

‘설마 내가 어떻게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무책임하게 행동하

"괜찮겠지.." 사고 주원인 '안전불감증'을 없애야..

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은 산업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대 2공장의 현장에서 만난 김충민 주임은 생산력 향상과 더불어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이 “안전 불감증 타파”이다.

“용접이라는 것이 품질 문제에 있어 마무리 공정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작업 도중 용접 불꽃이 튀어 화재의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예전에 일했던 1공장에서는 바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위험한 일인 줄 몰랐는데 2공장에 와보니 3m이상의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환경에 용접부분까지 신경써야 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을 하러 갈 땐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특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한다.

그밖에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 많은 것이 용접이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김충민 주임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용접 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정년 퇴직 때까지 다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다. 동료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김주임은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해 회사에 혹 덧붙이고 싶은 말이 없냐’는 마지막 질문에 조심스럽게 “2공장에도 1공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스포츠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집중력과 체력을 배가시켜 건강은 물론, 행여 발생할 ‘안전 불감증’ 퇴치에도

커다란 효과를 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터뷰를 끝내고 다시 용접기를 붙끈 쥐는 그를 보며, 안전 불감증은 다대 2공장에서는 이미 연소된 용접봉마냥 공허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송인환 계장

목포 선보유틸렉

Q.이번 달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입사한지 어느 덧 4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4년 동안 제 나름 열심히 했지만

영암공장 모든 분들을 칭찬합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Q.선보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현재 저는 목포 선보하아이텍 영암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평소 근무 시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면?

신념이라면 "남보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자" 인데 솔직히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맡은 업무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일에 함에 있어 남보다 앞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Q.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 모든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예전보다 조금 그늘진 느낌이

고요. 이럴 때 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웃음의 파장이 회사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웃을 일이 자주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다음 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저도 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영암공장은 본사와 달리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모든 분들을 칭찬했으면 하는데 그중 한명을 뽑으려면 직영 팀에 서순일 주임을 추천합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웃으면서 근무하는 모습이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 다음 칭찬 릴레이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 품질 방대혁(9/07)
- 영업 문해기(9/278)
- 설계 민병철(10/31)
- 환경안전 김중신(10/19)
- 대성유니트 조영록(10/10)
- 재원ENG 문영민(10/17)
- 정수ENG 이재연(10/19)
- 삼진공업 김진환(10/12),윤희동(10/22)
- 조립2반 장상권(10/01)
- 1공장 이경식(9/06), 이현우(9/23)
- 한승진(10/07),이상훈(10/31)
- 3공장 신성인(10/19)

구평공장

- 해양사업 이주희(10/19)
- 평창산업 허경남(10/03),김병기(10/05)
- 김영학(10/11),하경원(10/18)
- 서경프렌트 황여운(10/16),신광식(10/22)
- 김 술(10/25),노재근(10/27)
- 보성산업 전석연(10/11),장길환(10/24)



다대공장

- 개발설계1팀 옥승민(10/01)
- 개발설계2팀 이영우(10/01)
- 설계1팀 이종진(10/18)
- 기술연구소 장호길(10/02)
- 1공장 윤태호(10/01),민병철(10/01)
- 김제호(10/09),명철환(10/23)
- 장세렬(10/26),정성남(10/28)
- 현정환(10/28),조종환(10/28)
- 3공장 정상규(10/21)
- 김지수(10/01),김임곤(10/01)
- 이현우(10/01),지기환(10/01)

구평공장

- 해양설계 장호신(10/12)

Run SUNBO Run **틀린 그림 찾기 - 5곳을 찾아 주세요!**

이달의 명화 -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1857)

